나란히 매출 '1兆 클럽' 입성?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3분기 누적매출 전년 比 증가세

올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나란히 매출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기업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를 통해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사들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살펴본 결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처음으로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분기(1~9월) 셀트리온의 누적 매출액은 7395억원이다. 올해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려면 2605억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분기 2742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램시마와 트룩시마 등 주요 품목의 단가인하 이슈가 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매출 1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예상한 셀트리온 4·4분기 매출 추정치는 2707억원, 올 한해 1조102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셀트리온과 함께 1조원 클럽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3분기 누적 매출 5248억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유럽, 미국 현지 다국적제약사들은 재고량 조절을 위해 마지막 분기에 매입을 집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 매출의 50%가 4·4분기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셀트리온은 마지막 4·4분기 415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 3분기 매출의 8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번 4·4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전 3분기 보다 많은 5390억원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 매출 예상액은 1조638억원이다.

주요 제약사들 중에는 유한양행과 GC녹십자, 광동제약이 무난히 매출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 1조1046억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1조 클럽에 입성했다. 유한양행은 올해 마지막 분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연간 전년대비 3% 가량 늘어난 1조50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GC녹십자 역시 마지막 분기 341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올 한해 전년대비 3% 가량 늘어난 1조3300억원 가량의 연결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지난 3분기까지 8855억원의 매출을 올린 광동제약은 올해 1조1743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3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LG화학-英 '아박타'

항암·면역질환 '단백질 치료제' 공동개발

LG화학, 전세계 판권 독점 확보

단백질 체내 반감기 물질도 개발

LG화학이 기존 항체의약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단백질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11일 영국 케임브리지 소재 '아박타(AVACTA)'의 단백질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LG화학이 선정한 항암·면역질환 타겟물질을 공동개발 한다고 밝혔다.

'아박타'는 기존 항체보다 분자 크기가 작은 단백질 플랫폼 기술인 '아피머(Affimer)'를 보유, 항암 및 면역질환 분야 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박타'는 타겟물질에 대한 초기 연구 단계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이후 LG화학이 전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임상개발 전(全) 단계를 진행한다.

LG화학은 공동개발 과제의 전세계 판권을 독점으로 확보, 이에 대한계약금과 개발 및 상업화 성취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등을 파트너사에 지급하며, 상업화 이후에는 매출에 따른 단계별 로열티를 지급한다.

또 LG화학은 향후 별도의 타겟물질 추가 선정 및 공동개발에 대한 옵션도 계약에 포함시켰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백질 치료제의 체내 반감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물질 개발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기존 항체의약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박타'의 플랫폼 기술과 LG화학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역량을 합쳐 기존의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알라스테어 스미스 '아박타' CEO는 "LG화학은 뛰어난 임상개발 역량과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선구적인 비전을 갖춘 회사"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회사의 핵심 플랫폼 기술인 '아피머'의 잠재력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서울우유 간편대용식 '아이마이밀 오트밀크'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1~2인 가구를 위한 액상형 간편대용식 '아이마이밀 오트밀크(사진)'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제품 '아이마이밀 오트밀크'는 별도의 물이나 우유를 타서 마시던 기존 분말형 제품과는 달리 액상 그대로 섭취가 가능한 유당분해 가공우유로 아침식사가 부담스러웠던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격이다.

'아이마이밀'의 주원료로 사용된 '오트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장수국가 대표 음식 중 하나로 복합 탄수화물 및 섬유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소화가 잘 되며, 장내 유익균을 높여준다. 또한 설탕 및 액상과당을 일체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다.

'아이마이밀' 패키지의 경우, 세련된 일러스트로 처리해 '오트밀크'의 부드러운 맛을 표현해냈으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225㎖)로 휴대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더불어 긴 유통기한(6주)은 물론 실온보관이 가능하여 대량 구매 해놓고 음용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다.

윤태영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마케팅팀 팀장은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기존 간편대용식 제품들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강화시켜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니즈와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마이밀'이 2030 세대에 최적화된 간편대용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 행사 개최

동서식품은 1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부평동초등학교'에서 '2018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은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과 함께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동서커피클래식', '맥심 사랑의 향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수혜처는 장학사의 추천을 받아 국내 최초의 커피공장인 동서식품 부평공장 인근에 위치한 부평동초를 선정했다. 1940년에 설립된 부평동초는 독서릴레이와 독서토론, 독서골든벨 등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안정적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규모가 협소하고 도서 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 대부분의 도서가 매우 낡은 상태였다.

/박인웅 기자

강스템더마랩 '백만불 수출 탑' 수상

강스템더마랩은 7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 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 '무역의 날'을 기념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낸 업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2017년에 창립한 강스템더마랩은 제대혈 줄기세포 기술을 적용한 인체제대혈세포배양액 원료사업 및 화장품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줄기세포 전문 기업이다.

대표적으로는 셀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 '지디일레븐(GD11)'과 '배내스템(BENESTEM)'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인허가 진행부터 국내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인체제대혈세포배양액 원료 및 동결건조 포뮬레이션과 엑소좀 흡수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기술력의 우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홍콩, 미국, 일본 등 해외 수출 판로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GD11의 경우 타오바오, 티몰 등과 같은 중국의 대표 온라인몰에서 브랜드관을 운영하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강스템더마랩 이동열 대표는 "법인 설립 1년만에 사드 등 어려운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정확한 시장분석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얻은 성과"라는 말과 함께 "2019년에는 유럽 및 동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이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임직원을 위한 '아트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광동제약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아트클래스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 2층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가산천년정원에서 임직원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5회 아트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아트클래스는 '나만의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좌에 참여한 광동제약 임직원 20여 명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준비된 꽃과 다양한 재료로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었다.

강좌 중에는 리스 제작과 함께 명함 크기의 소형 판넬인 석고태블릿을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직원들은 준비된 틀 안에 석고와 함께 향료와 드라이 플라워 등의 장식을 넣고, 마른 석고 위에 크리스마스 메시지 등을 새겼다. 회사측은 완성된 작품과 리스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선물패키지까지 준비해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트클래스에 참가한 광동제약의 한 직원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이번 강좌 덕분에 원하는 장식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 성탄절은 특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동제약의 아트클래스는 직원들이 사내에서도 폭넓은 문화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번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회사측은 기획단계에서 설문을 통해 임직원이 원하는 강의 주제나 의견을 묻고 반영한다. 이번 강의 역시 12월을 맞아 직접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준비했다.

/이세경 기자

김대현 창원파티마병원 과장,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보령제약이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 제14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대상에 창원파티마병원 김대현 과장(사진)의 작품 '예방접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일 보령제약 본사 중보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98편이 출품되었으며 한국 수필문학진흥회에서 심사를 맡아 총 9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대현 과장의 '예방접종'은 필자가 초등학교 때 예방접종 차례를 기다리며 두려워하던 순간을 회상하며 호스피스병동을 맡은 의사가 된 후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치밀한 구성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의학 수필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